

# 발화(發火)기구

## - 부시, 황개비[引光奴] ①



인공적으로 불을 일으키는 전통의 발화(發火)법에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나무를 비벼 마찰열로 불을 내는 마찰법과 돌과 돌, 돌과 쇠를 맞부딪쳐서 불을 내는 충격법, 그리고 오목거울이나 볼록렌즈를 이용하여 햇빛을 모아 불을 일으키는 점화법이 있다.

이 가운데 나무를 이용한 마찰법은 석기시대를 비롯하여 오늘날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시부족 사회의 대표적인 발화방식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문화·지리적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지면(地面)에 화상(火床)이라는 나무를 고정해 놓고 그것에 뾰족한 막대기를 수직으로 꽂아 비비는 손비빔(회전법)의 방식이 널리 쓰인다.(사진 참조) 또한, 원통형 대나무를 이용한 발화피스톤 방식이나 활처럼 생긴 도구를 이용한 활비비 방식 등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손비빔(회전법) 방식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불을 일으키는데 있어 보다 편리하고 손쉬운 형태로 변화 발전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발화법은 부시를 이용한 충격법이 널리 쓰였다. 물론 나무를 이용한 마찰법이나 오목거울을 이용한 점화법이 쓰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 생활주거지에서 출토된 발화석(發火石)이나 고조선과 낙랑시대의 청동수화경(靑銅水火鏡)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부시의 경우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앞의 두 가지 발화방식 못지않게 오랜 연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생활필수품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 후기 보다 간편한 발화방식으로서 황개비가 만들어지고, 19세기 황개비가 다시 성냥으로 대체되면서 부시의 사용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거기에도 철과 세륨의 합금을 발화석으로 한 라이터의 등장으로 부시는 전국적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대체로 집안에서는 부엌의 아궁이나 화덕, 화로와 같은 곳에 불씨를 보관

사진 ① 나무를 비벼 불을 내는 마찰 발화(發火)/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22쪽


사진 ② 발화석(發火石)/청동기시대/길이 32cm/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출토/충북대학교박물관 소장/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24쪽

사진 ③ 부시를 이용한 충격 발화(發火)/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23쪽

사진 ④ 부시(火刀)/조선시대/길이 5.5cm~8cm/국립민속박물관 소장/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26쪽

하는 방식으로 불을 켜지만, 집 밖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가져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발화기구로서 부시가 필요하였다. 부시는 부시를 이용한 발화기구 전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부시들을 쳐서 불을 일으키는 쇧조각을 이르며, 부시쇠·부시·부수·화도(火刀)·수금(燧金)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진다. 차돌인 부시돌(燧石)과 한 쌍을 이루며, 여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준비한 부시깃(火絨)을 더해 부시쌈지(부시주머니)나 부시통에 넣어 보관한다. 상류층에서는 부시 손잡이 부분에 가죽을 입히고 여러 가지 장식과 문양을 넣어 호화롭게 멋을 부리기도 하였으며, 더러 길상(吉祥)의 무늬를 새겨 넣어 기복(祈福)의 뜻을 담기도 하였다.

부시에 불을 일으킬 때에는 한 손에 부시돌을 잡고 그 위에 부시깃을 얹어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 잡은 다음, 다른 손에 부시를 들고 내리쳐서 강한 마찰을 일으키면 부시깃에 불이 붙는다. 숙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동작을 여러 번 해야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부시를 이용한 발화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뒤따른다. 특히,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습도가 높아 부시 사용이 더욱 어렵다. 때문에 부시깃은 잘 건조되고 불이 잘 붙는 소재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부시깃은 수리치(戌衣草 - 잎의 등이 흰 쭉뚝)나 쭉뚝 등을 건조하여 불에 볶아 곱게 비벼서 만들며, 또한 솜이나 백지 따위를 잣물에 여러 번 문혀서 만들어 썼다. 더러 산간지역 같은 곳에서는 칩얌을 비벼서 쓰기도 하였으며, 부시깃은 모두 생활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 재료들이다. 부시돌은 석영(石英)의 한가지로 차돌이라고 하는데, 석질이 아주 단단한 반투명 또는 불투명의 빛깔을 띤다. 백색·회색·갈색·흑색 등 여러 가지 색상이 있다.

황개비는 한자어로 인광노(引光奴)라고 하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성냥개비의 옛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山林經濟)> 제4권 <잡방(雜方)> 조(條)에 보면 황개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광솔[松明]을 쪼개어 작은 조각을 만들되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유황(硫黃)을 녹여 그 끝에 발라두었다가 밤의 급한 일이 있을 적에 이것을 사용하여 불을 붙이면 즉시 붙게 된다. 어떤 때는 화피(樺皮)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너무 급히 타서 쉽게 꺼지기 때문에 오래 타는 광솔만은 못하다”고 한다. 이러한 황개비는 방의 머리맡 같은 가까운데 두고 급할 때 화롯불에 댕겨서 지금의 성냥처럼 사용하였는데, 황개비를 넣어두는 통을 고비(考備)처럼 따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옛 사람들의 멋과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 이훈중, <민족생활어사전>, 1993, 한길사
-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 한양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수장 유물선>, 1995
- <산림경제(山林經濟)>

사진 ⑤ 부시(火刀)/조선시대/가로 5.3cm, 세로 12cm/국립민속박물관 소장/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26쪽  
 사진 ⑥ 부시(火刀)/조선시대/가로 8cm, 세로 5cm/국립민속박물관 소장/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26쪽  
 사진 ⑦ 부시돌(燧石)/조선시대/길이 6~9cm/국립민속박물관 소장/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28쪽  
 사진 ⑧ 부시깃(火絨)/조선시대/국립민속박물관 소장/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28쪽  
 사진 ⑨ 부시와 부시쌈지/조선시대/가로 13.5cm, 세로 8cm/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한양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수장 유물선>, 1995, 654쪽  
 사진 ⑩ 부시쌈지(火刀囊)/조선시대/길이 9~11cm/국립민속박물관 소장/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27쪽  
 사진 ⑪ 부시, 부시돌, 부시깃, 부시쌈지/조선시대/국립민속박물관 소장/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27쪽